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고등학교 「세계지리」에서의 지리교육적 의미 탐색

신정엽*

Critical Review of the Urban Spatial Structure Model in Southeast Asia and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Geography Education at High School in *World Geography*

Jungyeop Shin*

요약 :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는 고유한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서구 도시와 다른 특성을 지녔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모델과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유용성과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 도시구조 연구는 McGee의 모델(1967)에 의해 본격화되었으며, Ford의 모델(1993)이 이어졌다. 이후 빠르게 변화되는 동남아시아의 대도시지역을 설명하기 위해 광역 대도시지역 모델(Extended Metropolitan Region: EMR) 모델, 도시 주변부 지역(Peri-urban region),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Peri-urban interface)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존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의 중심부와 주변 농촌 사이의 접이지역은 데사코타(desakota)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고등학교 지리교육에서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고등학교 「세계지리」의 분석 결과, 최근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의 소개는 다른 대륙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모델도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성, 적절성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다.

주요어 : 동남아시아 도시, 도시 공간구조, 도시 공간모델, McGee의 모델, 데사코타, 광역 대도시지역 모델

Abstract : The urban spatial structure in Southeast Asia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Western ones, and the relevant research has been implemented. This paper tried to review the models and concepts for explaining the unique urban spatial structures in Southeast Asia, and then to evaluate their usefulness and values. The research for urban structure in Southeast Asia has been initiated since McGee's model (1967), and then Ford's model (1993). After then, several models and concepts such as Extended Metropolitan Region (EMR) model, Peri-urban region, Peri-urban interface have been proposed in order to explain the dynamic urban spatial structures in Southeast Asian city. Especially, the changing transition region between the urban core in the metropolitan region and traditional rural region has been explained with "desakota" concepts. Then,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urban spatial structure model in Southeast Asia, I tried to explore the meanings on the geography education at high school level. As a result of reviewing *World Geography* textbook at high school level, the introduction of Southeast Asian cities, with more actively interactions and visiting recently, was more relatively rare than that of cities in the other world. Further the proposed model in the *World Geography* textbook was not correct, and has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recency and relevancy.

Key Words : Southeast Asian City, Urban spatial Structure, Urban spatial model, McGee's model, Desakota, Extended metropolitan region model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shin@snu.ac.kr)

I. 서론

아시아 남동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는 아시아 내륙, 인도차이나반도, 말레이제도 등으로 구성되며, 인접한 인도, 중국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풍부한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동남아시아는 오랜 기간 인도, 이슬람 지역, 중국과 교역하였으며, 근대에는 유럽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현대 동남아시아는 고유한 문명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 유럽, 미국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Osborne, 2016; Tyner and Ortega, 2016; 신정엽, 2022a). 이러한 동남아시아에서 도시는 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약 6억 4,878만 명의 인구 중 48.3%가 도시에 살고 있다(2018년 기준). 동남아시아의 도시화는 국가별로 다른데, 도시화율의 경우 싱가포르(100%), 브루나이(77%), 말레이시아(75%)가 높은 반면, 캄보디아(23%), 동티모르(30%), 미얀마(30%)는 낮은 편이다(2018년 기준; UN, 2019).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백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를 포함하여 25개 이상이다(Brunn *et al.*, 2016). 동남아시아 도시는 국가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체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도시와 관련하여 지리학 분야의 체계적, 심층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도시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이들 연구도 주로 개별 도시의 경험적 연구(예, 한광야·곽혜빈, 2018; 최막중·김다현, 2019; 한광야 등, 2020; 신정엽, 2022b), 특정 분야의 단편 연구(예, 권태호, 2003; 권태호·신철경, 2006)로 국한되어, 동남아시아 도시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은 서구 관점의 공간구조 이론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와 관련하여 Wu and Sui(2016)는 3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서구와 달리 동남아시아는 농업, 비농업 활동이 혼재된, 인구가 밀집된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이 많으며, 이런 이유로 도시-농촌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는 단순한 교외화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예, 제조업 성장)과도 관련된다. 셋째, 동남아시아 도시의 주변부 지역에는 서구와는 다른 다양한 기능들이 혼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남아시아의 도시공간 설명에 서구 모델과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Ginsburg *et al.*, 1991, Wu and Sui, 2016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지리학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접근을 시도한다. 즉,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의 필요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시 공간구조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의 도시 공간구조 모델은 McGee의 모델(1967)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Ford의 모델(1993), 광역 대도시지역(Extended Metropolitan Region: EMR) 모델, 메가도시 지역 모델 등이 있다. 또한 도시 주변부(Peri-urban) 지역,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Peri-urban interface) 등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도시 공간구조 모델의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고등학교 「세계지리」에서 제시된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을 살펴보고 지리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과 개념적 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와 관련 교육과정 문서를 검토, 분석하였다.

II.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 연구의 필요성

세계에는 다양한 도시들이 분포하며, 이들 도시는 공통점도 공유하지만, 차별화된 특징도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도시는 세계 다른 지역의 도시와는 차별화된 역사적, 지리적 배경, 맥락,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서구 관점의 이론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cGee(2009)는 현대 도시화 공간패턴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도시와 농촌에 대한 기존의 정의, 개념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둘째, 인구 증가에 따른 대도시지역의 공간적 확대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외연적으로 확대되는 대도시지역의 공간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대한 공간모델을 요구하였다.

동남아시아 도시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서구 도시와는 다르다. McGee(1991b)는 서구의 도시 접근이 아시아 도시에 적용하는데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첫째,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도시와 농촌 활동의 공간 분리 관점은 협소할 수 있다. 둘째,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관련하여, 집적경제와 비교우위에 따른 도시화의 필연성 주장은 부적절할 수 있다. 셋째, 19, 20세기 서유럽, 북미의 도시화의 사례를 토대로 구축된 이론적 논리가 개발도상국 도시화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없다. 특히 서구와 아시아 간 도시화의 뚜렷한 차이로 도시-농촌간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서구의 이론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가동(이촌향도) 요인을 강조하여, 이로 인해 도시성장과 대도시화가 나타났다고 본다. 그런데 아시아의 도시화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이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성격을 가지며, 또한 도시와 농촌의 경계도 뚜렷하지 않다(Wu, 2009). 아시아의 도시화는 대도시 주변의 이미 인구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대규모 이촌향도는 필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도시지역 주변의 인구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비농업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서구 도시화에 주로 적용되던 이촌향도 요인은 아시아 도시화에는 그만큼 유용하지 않다(McGee, 1991a; Sui and Zeng, 2001).

또한, 도시와 농촌에 대한 공간적 관계는 서구와 동남아시아 도시 간에 차이가 있다. 기존의 도시-농촌 이분법은 너무 단순하여 실제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으며, 이보다는 도시-농촌 연속성(continuum) 접근이 적절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도시-농촌의 경사(gradient), 변화율, 여러 요인의 결합과 복잡성 등이 도시와 농촌 중간 지역에서 나타난다. 또한 도시-농촌의 인터페이스는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 형태로 나타나, 종종 엣지시티(edge city), 도시 군도(urban archipelago), 데사코타(desakota), 광역 대도시지역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Simon and Adam-Bradford, 2016). McGee(1964; 1995b)는 도시와 농촌 간 관계에 대한 서구 관점에 의문을 제시하며, 동남아시아 도시를 위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동남아시아 도시를 설명하는 도시공간 모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III.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 연구

1. 동남아시아 공간구조의 초기 연구

동남아시아 도시의 공간구조 연구는 194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연구는 주로 식민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말레이 지역 연구

(Dobby, 1950; Fisher, 1964),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지역 연구(Gourou, 1940; Robequain, 1952), 미국의 필리핀 연구(Spencer, 1955; Wernstedt and Spencer, 1967),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연구(Wertheim, 1958)가 있다. 이 시기 연구 주제는 주로 인구성장, 인구가동이었으며, 또한 개별 도시의 역사, 상황에 초점을 두어 도시 공간구조의 일반화가 쉽지 않았다(Breese, 1966, Dick and Rimmer, 1998에서 재인용).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도시의 공간구조 모델은 McGee(1967)가 최초로 제시하였다. McGee는 동남아시아 도시화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도시: 동남아시아의 종주도시에 대한 사회지리(The Southeast Asian City: A Social Geography of the Primate Cities of Southeast Asia)」(1967) 저서를 출간하였다(McGee, 1995b). McGee(1967)는 이 저서의 전반부에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를 시기별, 즉 동남아시아 도시의 기원, 유럽 식민통치 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그리고 저서 후반부에서는 다양한 동남아시아 도시들의 무계획적, 무작위적인 도시성장을 확인하였고, 대도시의 인구가동, 경제 및 주거패턴, 슬럼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Fryer, 1968; Kelly, 2007). McGee(1967)는 동남아시아 도시가 서구 도시와는 다른 발전 경로를 가졌으며, 공간구조 측면에서 서구 도시와 차별화되는 구역도 있다고 보았다. 즉, McGee(1967)는 차별화되는 2개 구역으로, 항만지구(Port zone)와 도시 주변부 지역의 조밀한 상업원예지구(Market gardening zone)를 제시하였으며, 이 두 구역 사이에는 혼재된 토지이용, 상류층 주거지역, 무허가 주거지역(squatter area)이 존재한다고 보았다(Kelly, 2007; Tyner and Ortega, 2016).

McGee(1967)는 최초로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의 일반화된 모식도를 제시하였다(그림 1). McGee의 모델(1967)에서는 서구 도시에서 전형적인 공식 CBD는 없으며, 대신 유럽 식민통치 시기 형성된 도심의 항만지구, 정부 구역(Government zone), 서구 상업지역(Western commercial zone: WC), 외국인 상업구역(Alien commercial zone: AC) 등의 클러스터들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거지역 구성은 Griffin and Ford의 라틴 아메리카 도시공간 모델(1980)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즉, 계층별(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섹터(sector) 형태의 복합적 주거 공간구조를 제시하였다. 특히 주거 공간구조 측면에서, McGee(1967)는 도심부와 주변부 지역 모두 저소득층, 상류층 지역이 혼재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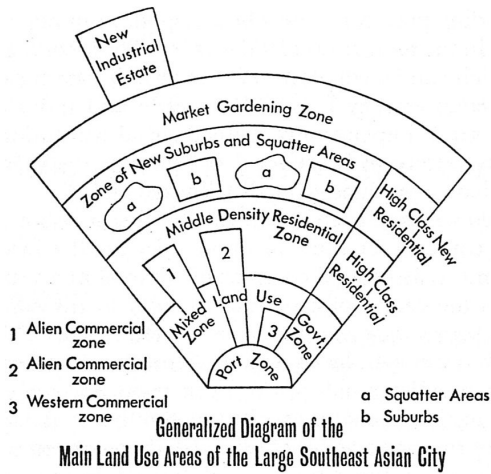


그림 1. McGee(1967)의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
출처: McGee, 1967.

으며, 점이적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후 등장하는 중산층은 도시의 경계지역(fringe)과 작은 틈새 지역들에서 정착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을 형성하였다. McGee(1967)는 유럽 통치시기 이래 도심 근처에서 오랫동안 형성, 유지된 유럽 엘리트층 주거지역에, 새로 유입된 외국인 인구(예, 중국인)의 이주 등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도시 주변부 지역에 순차적으로 주거지구들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때 이 모델(1967)에서는 교외지역에 위치한 중산층 주거지역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중산층 주거지역 비중이 작은 Griffin and Ford의 모델(1980)과는 차이가 있다(Fouberg *et al.*, 2015).

이후 Ford(1993)도 인도네시아 도시공간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 McGee(1967)가 동남아시아 도시공간의 설명시 '모델(model)' 대신 '일반화된 다이어그램(generalized diagram)'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Ford(1993)는 명시적인 공간구조 모델을 제시하였다. Ford(1993)는 인도네시아 도시의 지리적 고찰을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대도시의 공간구조를 일반화하였다. 먼저 Ford(1993)는 인도네시아 도시 역사를 고찰하면서, 자카르타, 수렘방, 수라바야 등의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들은 식민통치시기 또는 그 이전부터 교역 목적으로 주로 해안에 입지하였으며, 따라서 교역, 상업 기능이 도시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한편, 데마크(Demak), 벤텐(Benten), 아세(Aceh) 등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들은 이슬람 문화중심지가 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도네시아 도시는 유럽, 특히 네덜란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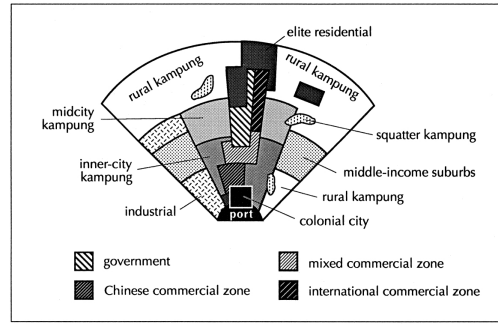


그림 2. Ford(1993)의 인도네시아 도시공간 모델
출처: Ford, 1993.

중국인 이주가 도시구조에 반영되어 있다.¹⁾

Ford(1993)는 도시의 토지이용과 경관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9개 구역으로 구성된 도시공간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도심에 위치한 항만-식민도시 구역(Port-colonial city zone)으로, 이후 도시 다른 곳에 새로 항만이 건설되더라도 이 지역은 계속 유지되며, 근처에 네덜란드 식민지구가 인접한다. 두 번째는 도심 근처에 위치한 중국인 상업구역(Chinese commercial zone)으로, 식민통치시기 중국인의 대규모 유입으로 형성되었다. 이 구역에는 중국인과 중국자본의 비중이 크며, 상업축을 따라 도심에서 확장된다. 세 번째 구역은 도시의 실질적인 경제기능이 집중된 혼합 상업구역(Mixed commercial zone)으로, 항만-식민도시 구역, 중국인 상업구역과 인접하며, 여러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네 번째는 국제 상업구역(International commercial zone) 또는 서구 상업구역(Western commercial zone: WC)으로, 간선도로를 따라 섹터 형태를 띠며 오피스 빌딩, 컨벤션센터, 고급 아울렛, 호텔이 입지한다. 다섯 번째 구역은 정부 구역(Government zone)으로 항만-식민도시 구역과 거리가 있으며, 행정, 오피스 기능, 경기장, 전시장, 광장 등이 입지한다.

여섯 번째 구역은 엘리트 주거구역(Elite residential zone)으로, 유럽 엘리트층이 조밀하고 열악한 항만지구를 떠나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섹터 형태인 이 구역은 점차 외부로 확장되며, 고급주택, 쇼핑몰 등이 입지한다. 일곱 번째 구역은 중산층 교외지역(Middle-income suburbs)으로, 중심축 주변에 클러스터 형태로 형성되며, 엘리트 주거구역, 캉풍과는 거리가 있다. 여덟 번째는 산업구역(Industrial zone)으로 1970년대 이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구역은 새로운 입지를 선호하며, 교외지역의

신규 산업단지는 고속도로, 철도로 항만과 연결되기도 한다. 아홉 번째 구역은 캄퐁(Kampungs)으로 불리는 무허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며, 인도네시아 도시공간의 핵심 요소이다. 캄퐁은 도시의 주요 기능(예, 항만지구, 엘리트 주거구역)이 먼저 조성된 이후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개발도상국에는 캄퐁과 같은 무허가 불량주택 지구가 많으며(예, 인도네시아 도시 인구의 약 2/3가 거주), 종종 비공식, 비계획적 형태를 띤다(Gottdiener *et al.*, 2016, 신정엽 등 역, 2019). 캄퐁 구역은 유럽인 주거 지역과 분리되며, 주택 수준, 주요 도시 인프라(예, 상하수도, 전력, 통신)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Ford(1993)는 4개의 캄퐁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즉 (1) 내부도시(inner city)의 캄퐁, (2) 도시 중간지역(midcity)의 캄퐁, (3) 농촌지역(rural)의 캄퐁, (4) 임시 무허가(temporary squatter) 캄퐁이다(Ford, 1993; Ernawati *et al.*, 2013).

이처럼 Ford(1993)는 인도네시아 도시구조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델을 자카르타 등의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Ford의 모델(1993)의 후속 연구는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McGee 연구(1967)의 많은 인용과 대조된다. 특히, Ford의 모델(1993)은 인도네시아 도시를 초점을 맞추어, 도시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조와 설명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시아 도시에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2. 데사코타(Desakota)와 광역 대도시지역 (EMR: Extended Metropolitan Regions) 모델

앞서 살펴본 것처럼, McGee의 모델(1967)은 항만을 포함한 도시중심과, 그 주변에 혼합된 토지이용을 가진 전통적 도시 공간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따라서 새로운 도시구조 모델이 필요하였다. 이에, McGee (1991a; 1991b), Ginsburg(1991) 등은 점차 확대되는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 공간의 다양한 기능, 활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데사코타(desakota)와 광역 대도시지역(Extended Metropolitan Region: EMR) 모델을 제시하였다(Dick and Rimmer, 1998). 데사코타와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은 연구자에 따라 별개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모델이라기 보다는 도시 모델의 전체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즉, 5개 영

역으로 구성된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에서 하나가 데사코타 지역이다. 특히, 데사코타는 서구의 대도시지역에서 잘 나타나지 않은,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의 전형적인 도시현상으로 제시되었다.

McGee(1991b) 등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점이지역에 주목하고 이를 데사코타로 명명하였다. 데사코타는 인도네시아의 마을(village)을 의미하는 ‘데사(desa)’와 도시(town)를 의미하는 ‘코타(kota)’가 결합된 용어로, 농업과 도시적 토지이용이 결합된 지역을 가리킨다. 도시, 주변 농촌과 상호작용하는 데사코타는 농업, 제조업 등이 혼재되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Wu and Sui, 2016). 도시화로 기존 대도시의 영역이 주변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과거 농촌이던 지역에서 도시적 경관이 점차 두드러지며, 종종 대도시지역들의 중심도시들을 연결하는 회랑(corridor) 형태를 띠기도 한다. 데사코타에서는 기존 농업 기반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지는데, 새로 건설된 공장에는 과거 농업 종사자가 주로 고용된다(Sui and Zeng, 2001; Wu and Sui, 2016).²⁾

McGee(1991b)는 데사코타의 특징은 다음 6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즉, (1) 소규모 농업(주로 벼농사)에 종사하는 밀집된 인구, (2) 비농업 경제활동의 증가, (3) 교통 인프라(도로, 운하 등)의 발달, (4) 저렴한 노동시장, (5) 인구와 상품 이동이 통합적인 여건, (6) 비공식 또는 불법 활동과 관련된 비가시적 또는 회색 지역(grey zones)으로의 인식이다. 한편 Moench and Gyawali(2008)도 데사코타의 특성을 9가지, 즉 (1) 대도시 중심지와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연결, (2) 일상의 노동시장 형성, (3)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이용, (4) 주민은 농업 외에도 도시 업종(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종사, (5) 농촌의 전통 가족 집단은 점차 감소, (6) 최신 기술이 전통 농경방식을 대체, (7) 지배적인 현금소득과 비공식부문도 많음, (8) 공식기관의 연계 취약성, (9) 글로벌 또는 지역과 연계 정도의 다양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데사코타의 형성은 다음 4가지 측면과 관련된다. 첫째, 도시-농촌 간 활발한 상호작용에 따라 데사코타는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다. 둘째, 이 지역은 세계경제와 통합되며, 해외(외국인) 투자가 지역 발전의 주요 역할을 한다. 초국적 투자로 기업이 입지하고 이 지역의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Tyner and Ortega, 2016). 셋째, 교통 발달이 데사코타에 영향을 준다. 과거 식민통치 시기 또는 이후 건설된

교통 인프라는 데사코타 발전에 기여하였다. 넷째, 농업에서 비농업(특히 제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가 데사코타의 지역성에 영향을 준다. 데사코타에 입지한 공장은 이곳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과거 이 지역에 살던 농업 인구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사회적 이동은 높지 않은 편이다(Wu, 2009; Chen *et al.*, 2017).

McGee(1991b)는 지역을 보다 넓혀 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데사코타 지역을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그림 3). 제 1유형은 주로 동아시아(서울, 도쿄 등)에 분포하는데,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촌향도로 대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 유형에서 중심도시를 둘러싼 데사코타는 농업 경관이 유지되지만, 또한 제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제 2유형은 지역이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로, 중국 해안의 주요 경제도시, 대만(타이페이-까오슝축), 홍콩, 인도의 주요 도시, 방콕(방콕-중부본지 지역)이 있다. 이 유형의 경우, 농업, 제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주민소득이 증가하고, 교통 인프라도 발전한다. 제 3유형은 위치, 경제 특성은 2유형과 유사하지만, 인구밀도는 높은 반면 경제성장은 더딘 경향이 있다. 이 유형은 국가의 중주도시보다는 2차 계층 도시에서 주로 발견

되는데, 예를 들어 자바의 욕야카르타(Jogjakarta), 인도 남부의 케랄라(Kerala), 타미나두(Tami Nadu), 중국 쓰촨 지역이 있다(McGee, 1991b; 2014; Wu, 2009; Chen *et al.*, 2017).

이러한 데사코타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아시아의 고유한 도시 특성, 패턴, 변화 연구(Johnson and Woon, 1997; Lin, 2001; Sui and Zeng, 2001), 지역 스케일의 요인과 도시화,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과 인구, 경제 측면의 연구도 수행되었다(Rimmer, 2002, Wu, 2009에서 재인용). Qadeer(2000, Wu, 2009에서 재인용)도 데사코타를 대도시의 기능이 주변 농촌으로 침투, 확장된 결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서구의 도시화와 차별화하여 “ruralopolis”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데사코타가 동남아시아 도시에 자주 인용되는 것은 동남아시아 주요 대도시가 하천유역에 입지하며, 이곳에서 수행되는 비농사의 풍부한 수확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된 것과 관련된다. 또한 데사코타는 해외자본 투자로 인한 제조업 발전과도 관련된다. 즉, 과거 도시 주변의 농촌이던 지역이 제조업 투자 등으로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점이지역 경관을 가진다(McGee, 2014). 이처럼 McGee(1991b), Ginsburg(1991) 등이 제시한 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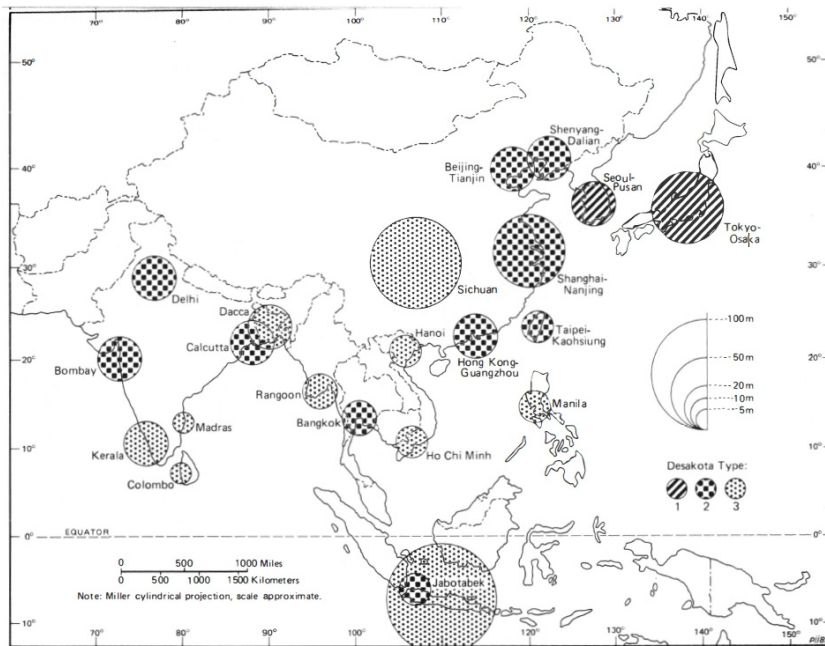


그림 3. 아시아에서의 데사코타 지역 분포

출처: McGee, 1991b.

코타는 동남아시아의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데사코타 모델은 농촌보다 도시가 중요시되는 서구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이 연계되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동남아시아 설명에 더 효과적이다(Fireman, 1996; Sui and Zeng, 2001; Kelly, 2007).

한편 데사코타 모델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데사코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되는데, 첫째, 데사코타 모델은 세계화 등의 외부 요인보다는, 도시의 내부 요인 또는 지역(local) 요인만을 주로 고려하였다고 비판된다(Dick and Rimmer, 1998; Rimmer, 2002, McGee, 2009에서 재인용). 오히려 데사코타는 주변의 지역들과 통합되면서 광역의 대도시지역을 형성하며, 이는 농촌의 도시화라는 상향식의 지역 스케일 요인과 글로벌 영향을 지닌 도시확장의 하향식 요인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Lin, 2001; Wu and Sui, 2016).³⁾ 둘째, 데사코타는 프로세스의 정의가 명료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McGee (1991b)는 데사코타의 지리적 현상을 기술하였지만,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기준, 프로세스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비판된다. 즉, 광역의 대도시지역에서 어떤 지역이 데사코타로 정의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또한 다른 구성지역과 차별화는 특성 설명도 부족하다(Wu, 2009).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을 설명하기에는 데사코타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데사코타는 광역 대도시지역의 일부이며, 따라서 전체 관점의 조망이 요구된다. 이 맥락에서 McGee (1991b)가 제안한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이 더 유용하다.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은 중심도시, 교외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농촌까지 포함하는데, 심지어 간선도로를 따라 100km 반경의 영역까지 확장된다(McGee, 2002). 서구의 광역 대도시지역은 도시 중심지(또는 중심도시) 사이의 지역은 인구밀도도 낮고, 토지 이용도 집약적이지 않은 편이다. 반면 동남아시아 광역 대도시지역에서 도시 중심지 사이의 점이지역에는 주거, 제조업 기능이 고밀도로 분포하며, 농업경관도 집약적이다. 이 점이지역은 광역 대도시지역 모델의 한 요소인 데사코타이다(McGee, 1991b; Robinson, 1995; Sit, 1996).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은 5개 지역, 즉, (1)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도시(Major cities), (2) 주요 도시를 둘러싼 통근가능한 도시 주변부 지역(Peri-urban region), (3) 대도시와 주변 소규모 도시들과 연결된 회랑 형태의 데사코타 지역(Desakota region), (4) 인구 밀집 농촌지역(Densely populated rural region), (5) 인구 희소 지역(Sparsely populated frontier region)으로 구성된다(McGee, 1991b; 그림 4). 이 중 데사코타는 광역 대도시지역에서 주요 도시, 도시 주변부 지역과 공간적으로 연계된 점이지역이다(Fireman, 1996; Moench and Gyawali, 2008). 이 모델에서 주요 도시, 도시 주변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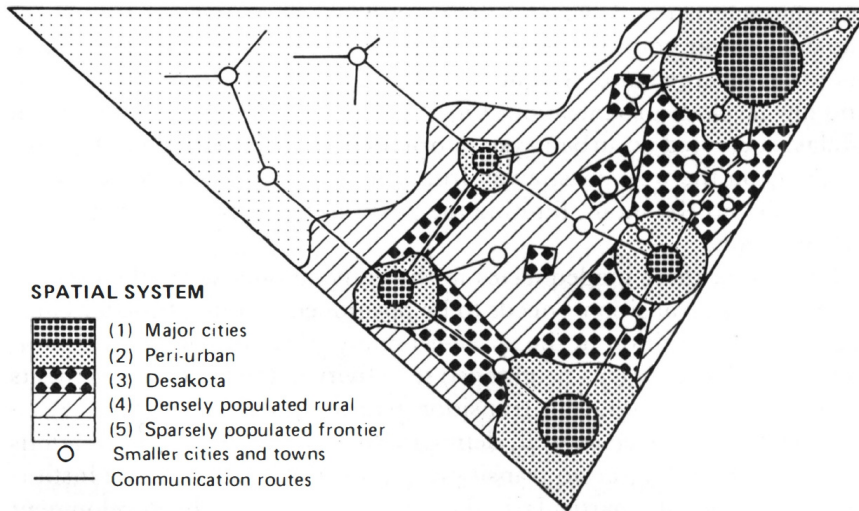


그림 4. McGee-Ginsburg의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

출처: McGee, 1991b.

역, 인구 희소 지역은 서구 도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데사코타, 인구 밀집 농촌지역은 보기 어렵다.

Fireman(1996)은 광역 대도시지역 모델을 인도네시아 반둥 대도시지역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반둥 대도시지역에서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둥시(city of Bandung)가 주요도시이고, 이를 둘러싼 행정구역인 Lembang, Cicalengka, Padalarnag, Banjaran, Soerang 등이 중심도시와 상호작용하는 도시 주변부 지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회랑의 데사코타 지역으로 Bandung-Cimahi-Padalarnag-Ganjur-Bogor-Jakarta, Bandung-Gicalengka-Sumedang-Cirebon, Bandung-Soerang 등이 있다. 그리고 데사코타 주변에 인구 밀집 농촌지역이 분포한다. 반둥 대도시지역에는 도시와 농촌간 구분이 모호하고, 반둥시와 주변의 소규모 도시들은 물리적으로 통합되고 공간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Rigg(1997)도 McGee(1991b)의 연구를 토대로, 교통, 통신 발달로 인구, 활동이 연결되는 광역 대도시지역(EMR)을 설명하였다. 즉, 더 넓은 지역의 인구, 활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농촌과 대도시의 구분도 점차 사라진다고 보았다. Rigg(1997)은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 호치민, 하노이를 주요 사례로, 광역 대도시지역 모델의 특징을 7가지, 즉 (1) 비농사에 종사하는 밀집된 인구, (2) 원활한 교통망, (3) 높은 이동성을 지닌 인구, (4) 비농업 활동의 증가, (5) 연관된 토지이용의 모자이크, (6)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 (7) 지역계획의 부족으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은 동남아시아에서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심성이 강한 확장된 도시-국가 유형이며, 유일 사례인 싱가포르의 주변 지역에 정치, 경제적 영향을 파급시킨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Riau archipelago),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Johor state)와 연계되며, 이러한 초국적 삼각 성장축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클러스터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저밀도 광역 대도시지역으로, 쿠알라룸푸르, 호치민이 대표적이다. 이 유형은 대도시의 경계에 신도시, 교외중심지들이 다핵 도시구조를 형성하며, 도시규제로 인해 저밀도로 유지된다. 연방지구인 쿠알라룸푸르는 다른 지역보다 광역 대도시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세 번째 유형은 고밀도의 광역 대도시지역으로서, 자카르타, 마닐라, 방콕 등이 있다. 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상당수 인구가 중심도시를 벗어나 스프롤되며, 도시기능이 주변 배후지역으로 확장된다. 방

콕의 경우 도시 전체 인구의 73%가 중심도시 외부에 위치한다(McGee, 1995a; Tyner and Ortega, 2016).

동남아시아의 광역 대도시지역은 중심도시의 주변이 점차 저밀도로 도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 도시화된 넓은 지역에는 자동차 기반의 서구 도시와는 달리, 주로 오토바이,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편이다.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의 중심부에는 고층의 오피스, 행정, 쇼핑 기능이 밀집된 반면, 주변부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주로 입지하였다. 중산층은 기존에는 도시중심부 근처에 입지하다가, 최근에는 주변부 지역에 개발되는 신도시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광역 대도시지역의 상당수의 노동자는 주변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심으로 통근하는데, 이는 서구의 압축 방식의 도시화가 아닌, 공간적으로 느슨하게 확장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를 반영한다(McGee, 1995a).

더 나아가 McGee and Shaharudin(2016)은 최근 역동적인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1991b)을 수정하여 3구역(zone)으로 구성된 메가도시 지역(mega-city region)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5). 이 모델은 (1) 중심도시(Core city)가 내부에 위치하며, 순차적으로 (2) 내부 링 지역인 도시 주변부 지역(Peri-urban zone), (3) 도시 및 농촌 활동이 혼재된 데사코타 지역(Desakota zone)이 위치한다. McGee and Shaharudin(2016)은 이 모델에서 도시 주변부 지역의 정의가 모호함을 인정하지만, 이 지역에서 도시활동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메가도시 지역의 도심에는 고밀도의 상업, 금융, 오피스, 생산자서비스 기능이 집적되며, 주변부 지역에는 일부 상류층 폐쇄적 커뮤니티, 저밀도의 경관이 혼재된다. 메가도시 지역은 아시아의 주요 대도시인 마닐라, 방콕, 쿠알라룸푸르가 있다. 이들 메가도시 지역은 국가 평균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Douglass, 2000). 이 모델은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의 설명에 용이한데, 즉, 메가도시 지역은 빠르게 외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 및 중규모 도시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두번째 지역인 도시 주변부 지역의 발전 속도는 실제 대도시의 토지이용, 지역정책, 세계 시스템과의 통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도심에서 도시 주변부 지역으로 도시화 영역이 확대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교통발달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도심과 인접 지역들이 점차 연계, 통합된다(McGee and Shaharudi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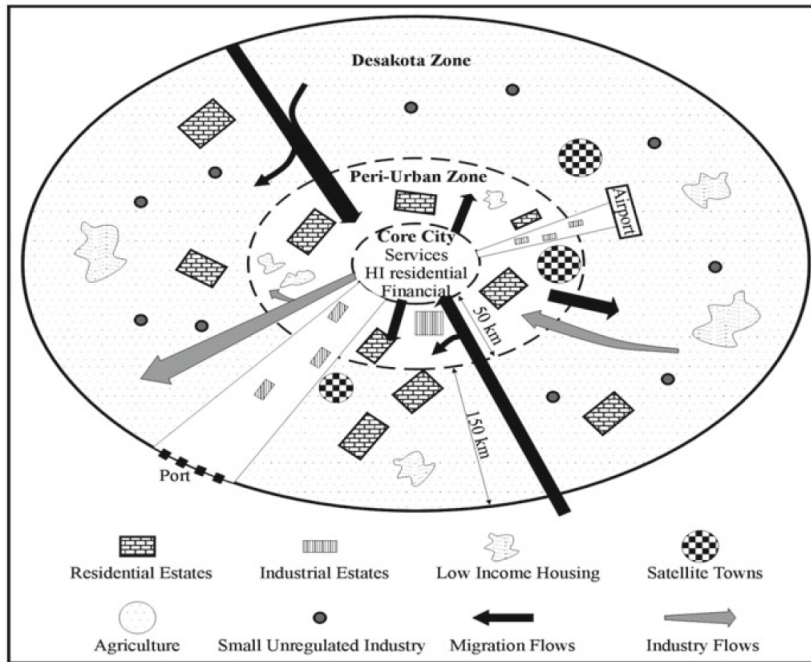


그림 5. 동남아시아 메가도시 지역(mega-city region)의 공간 모델

출처: McGee and Shaharudin, 2016.

3. 도시 주변부 지역(Peri-urban region)과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Peri-urban interface)

한편 동남아시아 도시를 설명하는데, 데사코타와 유사한 개념으로 도시 주변부(Peri-urban) 개념도 자주 사용된다. 도시화로 특정 지역이 농촌 특성에서 도시적 특성으로 변모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대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다(Varkey and Manasi, 2019). 도시 주변부 지역은 도시 중심부에 인접하면서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으로, 종종 준-도시 지역(exurban region), 도시-농촌 경계 개념과 함께 사용된다(Houston, 2005). 이 지역은 기존의 농촌 경관이 점차 약해지지만, 강한 도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Allen, 2003; Danielaini *et al.*, 2018).

그런데 도시 주변부 지역은 관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McGee(2009), McGee and Shaharudin(2016)은 메가도시 지역 모델에서 도시 주변부 지역과 데사코타 지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반면 Webster(2002), Webster *et al.*(2003)은 McGee(1991b) 등이 구분한 도시 주변부 지역과 데사코타 지역을 모두

포함한 도시 주변부 지역을 정의하였다. 또한 도시 주변부 지역 정의와 관련하여, (1) 도시성을 지닌 농촌지역의 관점, (2) 도시와 농촌 특성을 모두 지닌 혼합적 관점, (3) 대도시지역 외부의 지리적 특성을 강조한 관점이 공존한다. 도시와 농촌 특성이 혼재된 도시 주변부 지역은 주변 지역을 계속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Webster, 2002; Budiyanitini and Pratiwi, 2016). 이러한 도시 주변부 지역은 다음 3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지역으로 도심에 가까울수록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며 멀어질수록 덜 집약적인 경향이 있다. 둘째, 많은 도시 주변부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이용의 역동성을 가진다. 셋째, 이 지역은 지역 거버넌스에 영향을 받는데, 다양한 정책, 제도의 결과 지역 특성도 달라진다(Butsch and Heinkel, 2020).

이러한 도시 주변부 지역의 구체적인 공간 범위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도시화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지역 특성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의 토지이용이 계속 변화하며 비연속적, 파편화되면서, 정확한 경계 설정이 어렵다. 관점에 따라 도시 주변부 지역을 대도시지역의 내부에 있다는 견해,

대도시지역의 외부, 대도시와 농촌 사이의 공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McGee and Shahurudin, 2016, Danielaini *et al.*, 2018에서 재인용).

한편 Iaquina and Drescher(2001, Varkey and Manasi, 2019에서 재인용)는 도시 주변부 지역을 5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즉 (1) 도시와 인접하며 어바니즘을 경험하고 도시적 인식을 갖는 농촌 마을(rural village)로서의 마을 도시 주변부 지역(village peri-urban), (2) 주로 이주를 통해 형성되며, 도시에 인접하지만 독립된 공간 형태의 도시 주변부 지역(in-place peri-urban), (3) 지리적으로 도시에 인접하면서, 연속된 이주 과정을 통해 도시경계 지역에 형성된 연쇄 도시 주변부 지역(chain peri-urban), (4) 다양한 지역의 이주자들로 형성된 도시 주변부 지역(diffuse peri-urban), (5) 오랜기간 인접한 도시에 흡수되어 형성된 도시 주변부 지역(absorbed peri-urban)이다. 한편 Webster(2002)는 태국 Eastern Seaboard 지역, 필리핀 National Capital Region 남부, 중국 항저우 지역을 사례로 도시 주변부 지역을 분석하였다. 태국의 Eastern Seaboard 지역은 방콕 대도시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주변부 지역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의 National Capital Region은 마닐라 대도시 지역의 남부에 위치한 도시 주변부 지역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도시 주변부 지역은 도시와 농촌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므로, 종종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Peri-urban interface)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⁴⁾ 인터페이스 용어는 도시-농촌 간 경계가 모호하며, 도시와 농촌이 공간적으로 연속된다는 사고와 관련된다(McGregor *et al.*, 2006; Ravetz *et al.*, 2013). 이런 의미에서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는 도시와 농촌의 접이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혼합적 토지이용과 경제, 사회 변화가 나타난다(Rakodi, 1999).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⁵⁾는 환경, 사회, 제도의 3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경 측면에서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는 자원과 에너지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질적인 자연 생태계, 농업 생태계, 도시 생태계가 모자이크되어 구성되며, 이들 생태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순환된다. 둘째, 사회 측면에서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는 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집단들(예, 소규모 농민, 비공식 주민, 기업가, 중산층)로 구성되며, 이 공간에 공존하면서 협력 또는 갈등 관계가 유발된다. 셋째, 제도 측면에서 이

지역 주민은 도시, 농촌의 다양한 제도, 법, 규정 등에 영향을 받는데, 또한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제도가 공존한다(Narain and Nischal, 2007). Atkinson(1999)도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메가도시에는 주변부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데, 메가도시의 힘이 약해지면서 도시-농촌간 연계가 재정립되면서 주변부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준다. 둘째,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는 서구 도시처럼 산업화와 도시화가 직접 연계되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도시-농촌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조업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 중심부에서 인접한 농촌지역이 중요시된다. 셋째, 전통적인 농촌도 도시와의 네트워크가 발전하며, 경제, 사회 측면에서 도시와 상호작용한다. 넷째, 일부의 경우 하천, 해안을 따라 연결된 선형 도시가 발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는 대도시 전역에 수자원, 식량, 저렴한 부지, 노동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IV. 지리교육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공간구조 모델의 함의

1.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 모델 검토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 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은 서구의 대도시지역과 차별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은 서구와 비해 중추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또한 이들 대도시는 서구 도시화와는 다른 차별화된 역사적, 문화적 경로를 겪었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대도시 지역 영역이 외부로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접이지역은 많은 경우 서구 도시화의 주요 요인인 사회적 이동(예, 이촌향도)보다는 기존 농촌인구의 “도시화”로 설명되는 경향이 가지며, 이는 데사코타 개념 등으로 설명된다. 둘째,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의 공간 내부구조는 유럽식민통치, 세계화 과정 등 외부 경제 요인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여, McGee의 모델(1967), Ford

의 모델(1993)에서는 유럽식민통치 시기 유럽과의 접근성과 관련한 항만지구, 유럽 엘리트 주거지역 등이 도시 공간구조의 주요 기능을 차지한다. 한편 1990년대 이후의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 메가도시 지역 모델에서는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기업의 투자로 인한 제조업 입지와 이로 인한 데사코타 지역, 도시 주변부 지역의 역동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외부 경제 요인은 동남아시아 대도시의 공간구조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동남아시아 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지역의 도시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 기능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도시 공간구조 모델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1960~1980년대의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도시공간구조와 관련하여 McGee의 모델(1967), Ford의 모델(1993)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후 대도시화에 따른 확대된 대도시지역의 복잡한 도시공간구조와 관련하여 광역 대도시지역 모델(EMR), 메가도시 지역 모델 등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동남아시아 도시공간구조를 설명하려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졌다.

2. 동남아시아 공간구조 모델의 지리교육적 의미

이러한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 모델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이 모델의 지리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 모델은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인 「세계지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세계지리」에서 동남아시아 도시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조금 변화를 겪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함께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교육과정 상에서 개발도상국 도시와 관련한 도시 구조 모델은 주로 라틴아메리카,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도시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표 1 참조).

두 시기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개발도상국 도시공간구조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 도시 모델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었으며, 그 다음으로 남부 아시아 도시 모델이 언급되어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은 두 개 교육과정의 7종의 교과서 중 3개 교과서에서만 매우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표 2 참조).

이 중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

표 1.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육과정 상의 개발도상국 도시 관련 성취기준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요소	성취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	5. 세계화 시대의 인구와 도시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비교하고, 사례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구조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도시구조에 나타난 도시화 과정의 특징	중·남부 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도시 구조의 특징 및 도시 문제를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나 민족(인종)의 다양성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부, 2015.

표 2.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개발도상국 도시 내부구조 모델 비교

비교	교과서	동남아시아 도시모델	라틴아메리카 도시모델	남부아시아 도시모델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	○	○	
	천재교육		○	○
	비상교육	○	○	○
2015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과서		○	
	금성출판사		○	
	비상		○	○
	미래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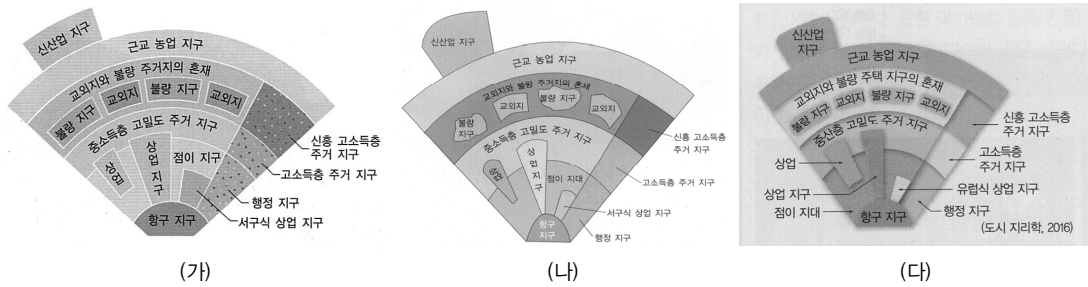


그림 6.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 수록된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 모식도

* (가), (나), (다) 순으로 교학사(2014), 비상교육(2014), 미래엔(2019)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음.

계지리」 교과서에서 제시된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의 검토 결과,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을 다룬 세 교과서 모두가 가장 오래된 McGee의 모델(1967)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남아시아 도시에 대한 최초 모델로서 유럽 식민통치 시기의 영향을 반영한 초기 도시공간 구조를 다룬다. 그런데, 「세계지리」 교과서에 수록된 이 모델의 모식도에는 원래 McGee의 모델(1967)의 원본과는 다른 왜곡된 공간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본 모델에서는 도시 중앙부에 위치한 “Zone of New Suburbs and Squatter Areas” 구역 내부에는 무허가 주택들이 위치한 “squatter area”이 불규칙한 폴리곤 형태로, 새로 형성된 교외지역인 “suburbs”은 사각형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2종의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상이한 기능의 주거지역(suburbs, squatter area; “불량지구”, “교외지”)은 동일 형태로 제시되어 구분이 어렵다. 다른 1종의 교과서에서도 두 지역간 형태적 구분이 쉽지 않다(그림 6).

둘째, McGee의 모델(1967)에서 제시된 일부 지역의 명칭이 교과서에서는 왜곡되어 제시되었다. 우선 McGee 모델(1967)의 중앙부에 위치한 “Middle Density Residential Zone”은 고밀도의 도시 중심부와 저밀도의 교외지역 사이에 위치한 “중간 밀도의 주거지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3종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이 지역 명칭을 각각 “중소득층 고밀도 주거 지구”, “중산층 고밀도 주거 지구” 등으로 왜곡되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거 계층과 주거 밀도의 오류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정작 McGee의 모델(1967)에서는 이 지역을 중산층 또는 중소득층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지역을 “고밀도”로 불 근거도 찾기 어렵다. 또한 McGee 모델(1967)에서는 도시 중심부에서 외부로 형성된 2개의 섹터로 “Alien

Commercial Zone” (1, 2번 기호로 범례화하였음)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은 도심부에 인접하여 유럽인에 의해 주로 형성된 “Western Commercial zone” (3번 기호로 범례화)과 대조되면서, 주로 중국인, 인도인에 의해 형성된 외국인 상업지역이다(McGee, 1967). 따라서 이들 두 지역은 “외국인 상업지구”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3종의 교과서에서는 이들 섹터 지구를 “상업”, “상업지구”로 구분없이 번역하고 그 지역의 색상도 달리함으로써, 원래 McGee 모델(1967)에서의 이 지역 특성이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 또한 모식도의 오른쪽에 위치한 “Western Commercial zone”에 대해서도 1종의 교과서에서는 “유럽식 상업 지구”로 표기하고 있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McGee 모델(1967)의 “Zone of New Suburbs and Squatter Area”는 교과서에서 “교외지와 불량 주거지의 혼재”로 번역하였는데, 그 본연의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유럽식민통치 시기 도심에 입지한 유럽인을 위해 재배된 교외지역에 위치한 원예농업 지구를 의미하는 “Market Gardening Zone”도 “근교 농업 지구”로 번역함으로써 그 정확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만지구(Port zone)와 서구 상업지구(Western Commercial zone)에 인접하여 여러 토지이용들이 혼재된 “Mixed Land Use Zone”도 “점이지구”로 의역되어 있는데, 여러 토지이용들이 혼재된 특성은 과도기의 점이적 특성은 그 의미에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세계지리」 교과서에 수록된 McGee의 모델(1967)의 대표성, 최신성, 적절성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세계지리」 교과서에 수록된 McGee 모델(1967)은 동남아시아 도시공간구조와 관련한 최초 모델로서, 발표된 후 55여년이 훨씬 지난 매우 오래된 모델이다. 따라서 이후 변화된 동남아시아 도시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수

많은 공간모델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990년대 이후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 메가도시 지역 모델, 도시 주변부지역,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 등이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동남아시아 도시를 다룬 분량은 매우 적으며, 또한 도시 모델의 모식도도 일부 교과서에서만 제시된 상황이며, 분량 제한으로 동남아시아의 여러 모델들을 함께 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대의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성, 최신성 등이 매우 떨어지는 너무 오래된 McGee의 모델(1967)을 굳이 교과서에서 대표 모델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문헌이 된다. McGee의 모델(1967)은 더 이상 동남아시아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며, 따라서 자칫 빠르게 발전하는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잘못된 오개념이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과거의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예, 울릉도의 우데기). 따라서 현행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최근 동남아시아 도시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공간구조 모델의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개발도상국 도시공간 모델 중 동남아시아 도시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개발도상국 도시공간 모델은 서구의 도시공간 모델과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 도시공간 모델과 관련하여,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도시 모델의 빈도가 높은 반면, 동남아시아 모델의 빈도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라틴아메리카보다는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상호작용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해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이 동남아시아 도시를 여행하고 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도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와, 현실성, 실용성, 활용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개발도상국 도시공간 모델 중 동남아시아 도시 관련 내용이 지금보다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구조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고등학교 지리교육에서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른 대륙 및 아시아 지역과 차별화

된 자연, 인문 특성을 지닌 동남아시아는 도시 발전과 도시화 역사에 있어서도 고유성을 지닌다. 동남아시아 도시구조 연구는 McGee의 동남아시아 도시 모델(1967)을 통해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으며 Ford도 인도네시아 도시 공간 모델(1993)을 제시하였다. 이후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데사코타와 광역 대도시지역(EMR) 모델이 제시되었다. 서구의 대도시지역과는 달리,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에서는 중심도시와 외부지역 사이에 도시와 농촌 요소가 혼재된 점이 지역이 존재하며 이를 데사코타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대도시지역에 특징적인 데사코타 지역을 포함하여 광역 대도시지역 모델, 메가도시 지역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전에는 농촌이었던 인접한 지역이 점차 대도시지역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이들 점지역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 주변부 지역,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 개념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 도시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노력은 기존의 서구 관점의 도시공간 모델과 차별화되며, 동남아시아 도시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도시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동남아시아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고등학교 「세계지리」에서 제시된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모델을 분석하였으며, 제시된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구조 모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변화하는 동남아시아 도시공간구조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성과 시의성이 떨어지는 McGee 모델(1967)은 적절한 도시공간 모델로 대체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도시공간 모델의 모식도만 간략히 제시하기 보다는 핵심 원리, 특성,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제시되어야만 동남아시아 도시공간 구조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註

- 1) 이는 식민통치 당시 토착민이 교역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식민통치에도 적대적이어서, 대안으로 식민통치세력이 중국인 이주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것과 관련된다(Ford, 1993).
- 2) 빠르게 도시화되는 점지역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도시화(invisible urbanization)', '농촌의 산업화(rural industrialization)', '농촌의 도시화(rural urbanization)'라고도 한다(Sit, 1996)

3) 최근 동남아시아 도시에 세계화 요인이 중요시된다. 즉, 국제분업,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전략 등이 동남아시아 도시에 적용되어, 동남아시아 도시변화, 정체성 연구가 수행되었다(Lo and Yeung, 1995, Dick and Rimmer, 1998에서 재인용).

4)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는 연구,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된다. 미국, 독일에서는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를 교외화와 동일시하기도, 별도의 프로세스로 인식된다(Simon, 2008). 한편, 도시 주변부 지역 또는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 용어는 국가마다 맥락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준-도시(semiurban)의 의미로 'halfstedig' 용어가, 독일에서는 도시-농촌 지역(urban-rural zone)의 의미로 'urban-landlichen zonen'의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 주변부 인터페이스 용어가, 유럽에서는 도시 주변부지역이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Carusio, 2001; Ravetz *et al.*, 2013).

5) Browder *et al.*(1995)은 대도시 경계지역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즉 (1) 도시와 농촌의 연계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2)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농업 특성이 강하고, 가까울수록 약해지는 경향, (3) 최근 정착한 빈곤층이 많으며, 주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4) 대도시 성장, 이촌향도, 교외화 등의 다양한 변화와 관련성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권동희·안재섭·오정준·신현중·조지욱·홍석민·유상철·정명섭, 2012,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천재교육.

권동희·안재섭·오정준·이승철·신현중·조지욱·신승진, 2014,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천재교육.

권태호, 2003, “동남아시아의 거대도시와 지속가능개발” 아시아연구, 6(2), 131-158.

권태호·신철경, 2006, “동남아시아 대도시 종합계획의 비판적 고찰: 서구의 이론과 지역적 현실의 불화?,” 아시아연구, 9(1), 23-50.

김종욱·주경식·서정훈·김태환·박용우·장성문·김남기·최재희·박재현·김선아, 2014,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교학사.

박철웅·조성호·강은희·이강준·홍철희·박병철·김지현·백승진·최재희,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미래엔

신정엽, 2022a,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특성과 도시화의 비판적 논의 검토” 지리교육논집, 66, 1-22.

신정엽, 2022b, “자바의 파리: 반등 도시공간의 역동성” 한국지리학회지, 11(2), 219-236.

신정엽·이정식·이경희·양희경·김봉수·유상철·박재현·박천영·박철진,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천재교육과사.

위상복·최규학·유성중·강성열·최희만·우연섭·이우평·이훈정·조철민·최종필·김지현·유진상·강재호·이두현·윤정현, 2014,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비상교육.

최막중·김다현, 2019, “서울, 자카르타, 마닐라, 방콕 대도시권의 도시확산 비교 분석” 국토계획, 54(1), 30-39.

최병천·유성중·강성열·김덕일·우연섭·이우평·김시구·이훈정·엄주환·남길수·김차곤·이화영·이두현·강문철·윤정현·김진형·방완석,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비상.

최원화·이민부·이영민·박선희·양희경·2012,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교학사.

한광야·곽혜빈, 2018, “필리핀 마닐라의 도시성장 특성에 대한 해석: 운하항구에서 광역도시로의 변화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9(6), 65-82.

한광야·신재영·하성현, 2020, “태국 방콕의 도시성장 특성에 관한 해석: 운하항구에서 다핵도시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1(6), 49-67.

황병삼·천중호·이준구·이해창·천재호·강재호, 2019, 「고등학교 세계지리」, 서울: 금성출판사.

Allen, A., 2003,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peri-urban interface: Perspectives on an emerging field,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15(1), 135-147.

Atkinson, A., 1999, Principles and Components of a

- Strategic EPM process relevant to the peri-urban interface (PUI), Research paper, Peri-urban research project team, University College London.
- Breese, G. ed., 1966, *Urbanization in Newly Developing Econom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rowder, J., Bohland, J., and Scarpadi, J., 1995, Patterns of development on the metropolitan fringe: Urban fringe expansion in Bangkok, Jakarta and Santiago,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3), 310-327.
- Brunn, S. Hays-Mitchell, M., Zeigler, D., and Graybil, J. eds., 2016, *The Cities of the World: Regional Patterns and Urban Environments*, 6th edi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Budyantini, Y. and Pratiwi, V., 2016, Peri-urban typology of Bandung metropolitan area,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7, 833-837.
- Butsch, C. and Heinkel, S.B., 2020, Periurban transformations in the global south and their impact on water-based livelihoods, *Water*, 12(2), 458-475.
- Caruso, G., 2001, Peri-urbanisation: The situation in Europe, A bibliographical note and survey of studies in the Netherlands, Belgium, Great Britain, Germany, Italy and the Nordic countries, Report prepared for DATAR, France.
- Chen, Y., Wen, Y., and Li, Z., 2017, From blueprint to ac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planning paradigm, *Cities*, 60, 454-465.
- Danielaini, T., Maheshwari, B., and Hagare, D., 2018, Defining rural-urban interfaces for understanding ecohydrological processes in West Java, Indonesia: Part I. Development of methodology to delineate peri-urban areas, *Ecohydrology & Hydrobiology*, 18, 22-36.
- Dick, H. and Rimmer, P., 1998, Beyond the third world city: The new urban geography of South-east Asia, *Urban Studies*, 35(12), 2303-2321.
- Dobby, E.H., 1950, *Southeast Asia*,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 Douglass, M., 2000, Mega-urban regions and world city formation: Globalisation, the economic crisis and urban policy in Pacific Asia, *Urban Studies*, 37(12), 2315-2335.
- Ernawati, R., Santosa, H., and Setijanti, P., 2013, Facing urban vulnerability through kampung development, case study of kampungs in Surabaya, Indonesi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1), 1-6.
- Fireman, T., 1996, Urban development in Bandung metropolitan region: A transformation to a desa-kota region, *Tommy Third World Planning Review*, 18(1), 1-21.
- Fisher, C.A., 1964, *Southeast Asia: A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Geography*, London: Methuen.
- Ford, L.R., 1993, A model of Indonesian city structure, *Geographical Review*, 83(4), 374-396.
- Fouberg, E., Murphy, A., and De Blij, H., 2015, *Human Geography: People, Place, and Culture*, 11th edition, New York: Wiley.
- Fryer, D., 1968, Reviewed work: The Southeast Asian City, *Economic Geography*, 44(3), 276-278.
- Ginsburg, N., 1991, Extended Metropolitan Regions in Asia: A new spatial paradigm, in Ginsburg, N., Koppel, B., and McGee, T. eds., *The Extended Metropolis: Settlement Transition in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7-46.
- Ginsburg, N., Koppel, B., and McGee, T. eds., 1991, *The Extended Metropolis: Settlement Transition in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Gottdiener, M., Budd, L., and Lehtovuori, P., 2016, *Key Concepts in Urban Studies*, 2nd edition, London: Sage(신정엽·김감영·김영호 역, 2019, 「도시 공간을 보다」, 시그마프레스).
- Gourou, P., 1940, *Land Utilization in French Indochina*,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 Griffin, E. and Ford, L., 1980, A model of Latin American city structure, *Geographical Review*, 70(4), 397-422.
- Houston, P., 2005, Re-valuing the fringe: Some findings on the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Australia's peri-urban regions, *Geographical Research*, 43(2), 209-223.
- Iaquinta, D. and Drescher, A., 2000, Defining peri-urban understanding rural-urban linkages and their connection to institutional context paper presented

- ata the Ten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Rural Sociology Association, Rio de Janeiro.
- Johnson, G. and Woon, Y., 1997, Rural development patterns in post-reform China: The Pearl River delta region in the 1990s, *Development and Change*, 28(4), 731-752.
- Kelly, P., 2007, Geographer, Asianist, urbanist: Celebrating the scholarship of Terry McGee, *Asia Pacific Viewpoint*, 48(2), 250-253.
- Lin, G., 2001, Metropolitan development in a transitional socialist economy: Spatial restructuring in the Pearl River Delta, China, *Urban Studies*, 38(3), 383-406.
- Lo, F. and Yeung, Y. eds., 1995, *Emerging World Cities in Pacific Asia*,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McGee, T.G., 1964, The rural-urban continuum debates: The preindustrial city and rural-urban migration, *Pacific Viewpoint*, 5(2), 159-181.
- McGee, T.G., 1967, *The Southeast Asian City: A Social Geography of the Primate Cities of Southeast Asia*, New York: Praeger.
- McGee, T.G., 1991a, Presidential address: Eurocentrism in geography: The case of Asian urbanization, *Canadian Geographer*, 35(4), 332-344.
- McGee, T.G., 1991b, The emergence of desakota regions in Asia: Expanding a hypothesis, in Ginsburg, N., Koppel, B., and McGee, T.G. eds., *The Extended Metropolis: Settlement Transition in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3-26.
- McGee, T.G., 1995a, Metrofitting the emerging mega-urban regions of ASEAN: An overview, in McGee, T.G. and Robinson, I. eds., *The Mega-Urban Regions of Southeast Asia*, Vancouver: UBC Press, 3-26.
- McGee, T.G., 1995b, Eurocentrism and Geography, in Crush, J. ed., *Power of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192-207.
- McGee, T.G., 2002, Reconstructing “the Southeast Asian city” in an era of volatile globalization, in Bunnell, T., Drummond, L., and Ho, K. eds., *Critical Reflections on Cities in Southeast Asia*, New York: Brill Academic Publishers, 31-53.
- McGee, T.G., 2009, The spatiality of urbanization: The policy challenges of mega-urban and desakota regions of Southeast Asia, UNU-IAS Working Paper, no. 161.
- McGee, T.G., 2014, The emergence of desakota regions in Asia: Expanding a hypothesis, in Brenner, N., *Implosions / Explosions: Towards a Study of Planetary Urbanization*, Berlin: Jobis, 121-137.
- McGee, T.G. and Shaharudin, I., 2016, Reimagining the “Peri-urban” in the mega-urban regions of Southeast Asia, in Maheshwari, B., Singh, V., and Thoradeniya, B. eds., *Balanced Urban Development: Options and Strategies for Liveable Cities*, New York: Springer, 499-516.
- McGregor, D., Simon, D., and Thompson, D., 2006, *The Peri-Urban Interface: Approaches to Sustainable Natural and Human Resource Use*, London: Earthscan.
- Moench, M. and Gyawali, D., 2008, *Desakota: Reinterpreting the Urban-rural Continuum*, Final Report Desakota II A.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http://r4d.dfid.gov.uk/PDF/Outputs/EnvRes/Desakota-Part-II-A.pdf>.
- Narain, V. and Nischal, S., 2007, The peri-urban interface in Shahpur Khurd and Karnera, India,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19(1), 261-273.
- Ortega, A., 2012, Desakota and beyond: Neoliberal production of suburban space in Manila’s fringe, *Urban Geography*, 33(8), 1118-1143.
- Osborne, M., 2016, *Southeast Asia: An Introductory History*, 12th edition, London: Allen & Unwin.
- Qadeer, M., 2000, Ruralopolises: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residential land economy of high-density rural region in South Asia, *Urban Studies*, 37(9), 1583-1603.
- Rakodi, C., 1999, Poverty in the Peri-urban interface, Natural Resources Systems Programme (NRSP) Research Advances, No. 5.
- Ravetz, J., Fertner, C., and Nielsen, T., 2013, The dynamics of peri-urbanization, in Nilsson, K., Pauleit, S., Bell, S., Aalbers, C., and Nielsen, T. eds., *Peri-urban Futures: Scenarios and Models for Land Use Change in Europe*, Berlin: Springer, 13-44,

- Rigg, J., 1997, *Southeast Asia: The Human Landscape of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Routledge.
- Rimmer, P.J., 2002, Overview: Restructuring Chinese space in the new millennium, *Asia Pacific Viewpoint*, 43(1), 1-8.
- Robequain, C., 1952, *L'Indochine*, Paris: Armand Colin.
- Robinson, I., 1995, Emerging spatial patterns in ASEAN mega-urban regions: Alternative strategies, in McGee, T.G. and Robinson, I. eds., 1995, *The Mega-Urban Regions of Southeast Asia*, Vancouver: UBC Press, 78-108.
- Simon, D., 2008, Urban environments: Issues of the peri-urban fringe,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33, 167-185.
- Simon, D. and Adam-Bradford, A., 2016, Archaeology and contemporary dynamics for more sustainable, resilient cities in the peri-urban interface in Maheshwari, B., Singh, V., and Thoradeniya, B. eds., *Balanced Urban Development: Options and Strategies for Liveable Cities*, New York: Springer, 57-83.
- Sit, V., 1996, Mega-city, extended metropolitan region, desakota, and exo-urbanization: An introduction, *Asian Geographer*, 15(1-2), 1-14.
- Spencer, J., 1955, *Asia East by South*,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i, D. and Zeng, H., 2001, Modeling the dynamics of landscape structure in Asia's emerging desakota regions: A case study in Shenzhe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53, 37-52.
- Tyner, J. and Ortega, A.A., 2016, Cities of Southeast Asia, in Brunn, S. Hays-Mitchell, M., Zeigler, D., and Graybil, J. eds., 2016, *The Cities of the World: Regional Patterns and Urban Environments*, 6th edi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422-463.
- UN, 2019,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8*,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New York.
- Varkey, A. and Manasi, S., 2019, A review of peri-urban definitions, land use changes and challenges to development, *Urban India*, 39(1), 96-111.
- Webster, D., 2002, On the edge: Shaping the future of peri-urban East Asia, Research Paper,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niversity.
- Webster, D., Cai, J., Muller, L., and Luo, B., 2003, Emerging third stage peri-urbanization: Functional specialization in the Hangzhou peri-urban region, Research Monograph. Stanford, CA: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niversity.
- Wernstedt, F. and Spencer, J., 1967, *The Philippines Island World: A Physical, Cultural and Regional Geograph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rtheim, W. ed., 1958, *The Indonesian Town: Studies in Urban Sociology*, The Hague: W. van Hoeve Ltd.
- Wu, B., 2009, Modeling the dynamics of desakota regions: Global-local nexus in the Taipei metropolitan area, Doctoral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 Wu, B. and Sui, D., 2016, Modeling impacts of globalization on desakota regions: A case study of Taipei metropolitan area, *Environment and Planning B*, 43(2), 320-340.
- 교신 : 신정엽,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geoshin@snu.ac.kr)
- Correspondence: Jungyeop Shin,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shin@snu.ac.kr)
- 투고접수일: 2023년 11월 19일
심사완료일: 2023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1일